

안철수

“원칙에 충실하면
10년 뒤도 두렵지 않다”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지난 95년 서초동 뒷골목에서 안철수연구소를 창업한 안철수. CEO 안철수의 영혼이 있는 승부가 어느덧 10년의 시간을 경과하게 됐다. 3명으로 시작된 안연구소는 어느덧 300명을 넘어서게 됐고 중국과 일본에 현지법인을 설립,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국내 보안기업들이 줄줄이 휘청대고 있는 상황에서 일궈낸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안 사장을 만나 지내온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들어봤다.

글 신승철 기자

10

여년 전 주변에서 회사설립을 권유하자 안철수 사장은 “외부활동보다는 혼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거나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회사를 만들어도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당연하지요, 사장 위에는 아무도 없잖습니까?”라는 답변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안철수연구소를 창업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어찌구무 없지만 그 한때다가 20대 박사, 의대 교수로 이어지는 길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세운 후 진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사장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해 감수하고서라도 원칙은 지킨다

사실 한국인에게만 사장은 가장 신뢰받는 리더,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 하나라 꼽힌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원칙을 지켜왔다는 이미지가 때 묻힐 것이다. 모 외국 회사에서 1,000만달러 규모의 인수제의를 해왔을 때 왜 인연구소를 만들었는가를 떠올리자 회사를 넘기는 일 따위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는 말에서 그가 얼마나 원칙에 충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일화도 있다. 2000년경 닷컴열풍이 불었을 때 주위에서 닷컴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 공개하거나 지분을 비싼 값으로 살 테니 차분하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안 사장은 핵심역량과 관계되는 분야가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다. 또한 그 당시 벤처기업의 평가에는 거품이 끼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도 주식을 팔지도 않았다.

안 사장은 회사 차원에서 보면 핵심 가치가 바로 지켜가야 할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구성원 모두가 믿고 실천하며 창업자나 CEO는 물론 구성원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에겐 영혼과 같은 것이 기업의 핵심 가치이며 곧 회사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회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회사의 핵심 가치를 어기면 살아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회사가 스스로 소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설정한 핵심 가치를 지키지 않았다면, 설명 그 회사가 생명을 이어가더라도 생존할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를 둘러싼 오해와 시기도 끊이지 않았다. 회사 실적을 위해 별 것 다 내놓고 깨끗한 척을 한다거나 서울대 학연을 이용한다거나 심지어 수사의사인데 학력을 위조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시종 침묵으로 일관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분명히 밝혀지리

라는 원칙을 믿었기 때문이다. 원칙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시간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자라는 게 안 사장의 믿음이다.

한국에서는 별 게 이치도 성공하기 어렵다

안 사장은 글을 쓰거나 일을 할 때 항상 향후 10년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 10년 뒤에 과거의 글이나 행적을 되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정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안 사장은 회사를 경영해왔다. 하지만 10년 후 국내 보안기업이 얼마나 살아있었느냐는 질문에 금세 우울해했다. 지난해 인연구소가 잘나갔다고 하지만 경쟁업체들마저 두손을 드는 형국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탓이다. 몇 년 전 200개를 상회하던 국내 보안업체는 이제 130여개로 줄어들었고, 이들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 사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환경은 정말로 어렵다고 토로한다.



“별 게 이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라도 한국에서는 성공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한다.

안 사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 ▲루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IT담당자들에게 대한 평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예전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으나 소프트웨어가 공짜라는 인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과 관공서를 대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 대형 시스템통합(SSI) 기업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실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시장장악력이 가격 결정권 가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경쟁력 없는 기업이 쉽게 퇴출되지 않는 산업 구조는 산업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IT담당자의 평가

에 있어 생산성 향상보다는 예산절감 실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산업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안 사장은 “최근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핸드폰이나 64비트용약성코드까지 등장해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도 약성코드는 여전히 위협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해킹 또한 기존의 제미 차원에서 벗어나 범죄 조직과 결탁,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정보보호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자체 규모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수입대체 효과도 함께 고려해 국가경제에 공헌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다”면서 “실무자들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정책 및 과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쓴소리로 마다하지 않았다. ☺